

KNCC의 今後의 과제

지난 2월 29일에 서울 연동교회에서 KNCC 25차 정기 총회가 열렸다. 어느 총회에 못지 않게 이번 총회에 교회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총무 인선과 현장 개정이라는 두 가지 잇슈 때문이었다. 총무 인선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다할 언급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장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못 착잡한 감정을 금할 길이 없다.

총무는 누가 되고, 임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KNCC의 현장이 바뀌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수차 보도나 논설로서 다루어온 바도 있는 것 같이 대단히 중대한 뜻을 지닌다고 본다. 현장은 인간의 옷과 같은 것이어서 한 기관의 현장이 그 사람의 정신 자세를 나타내는 주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. 이번 KNCC 총회에서 우리가 실망을 느낀 점이 있다면 좀 더 착실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, 옛 옷에다가 몇 가지 조각을 이어서 꿰멘 정도에 끝났다는 사실일 것이다. 좀 더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현장 개정이 이룩되지 못한데 대해서 자못 서운한 감을 금치 못하겠다.

그간 들리는 바에 의하면 KCCE와 합치는 문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가서 KCCE 직원들의 반발과 또 졸속주의라고 비난하는 KCCE 실행위원들에 의해서 좌절되고 보류되었다고 한다. KNCC 메두리속에서 교육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상의 문제뿐만은 아닌 줄 안다.

이러한 역사적인 작업이 몇 사람들의 불평 때문에 좌절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하겠다. 이것은 단적으로 현재 연

합 사업에 참여한 각 교파 대표들의 무책임, 아집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.

KNCC의 경우도 마찬가지다. 이번 현장 개정이 보류 연기된 사실 배후에는 아직도 KNCC가 협의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의 혼란이 깔려있다고 본다. 이러한 혼란은 과거 NCC가 각 교단이나 기존 사업 기관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의 사업을 가지려고 시도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. 교파나 사업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착수하여 공연한 낭비와 중복을 한데 대하여, 교회협의회로 현장이 바뀌어지면서 사업체의 성격을 전적으로 없이었던 것이다. 이것은 일단 수공이 가는 일이긴 하지만 교단이나 기존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연합 사업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. KNCC는 사업을 못하고 협의만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.

결국 무엇을 위한 협의며, 무엇을 위한 사업이나? 하는 근본 문제가 대두된다.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. 사업을 위한 협의는 협의를 위한 사업이다. 협의와 사업은 분리될 수 없다. 한 마디로 해서 오늘 한국의 NCC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운동이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면 협의와 사업이라는 이원론 때문에 제각기 분산된 개념 속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.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거친 사업 목적을 뚜렷하게 해야겠다.

협의를 위한 협의가 아니라, 사업을 위한 협의이어야 한다. 만일 이점만 분명해진다면 앞으로 KNCC 현장보완 작업은 무난하게 치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. 하루 속히 이러한 개념적인 혼란이 정리되고 실속있는 연합 사업이 추진되기를 빌어 마지않는다.